

2016년 상반기 북한 군수산업의 동향 및 성과 평가

조남훈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chonh@kida.re.kr

I. 머리말

북한의 군수산업은 사실상 다양한 형태의 산업을 포괄한다. 왜냐하면 북한군은 무기체계 또는 의복 같은 공산품뿐만이 아니라 곡식 및 해산물 등과 같은 1차산업 제품도 필요로 하는데, 이를 공장뿐만 아니라 농장 및 수산기업소 등으로부터 공급 받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군수품을 공급하는 군수업체의 상당 부분은 북한군에 의해서 직접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북한의 군수산업은 공업뿐만 아니라 농업 및 수산업 등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수산업이라고 칭할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무기체계 또는 군수품을 가공 및 생산하는 군수공업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군수산업과 군수공업 또는 국방공업을 상호 호환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우리는 본고에서 북한 군수산업의 2016년 전반기 동향 및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그런데 북한은 다른 나라와 달리 공식 경제지표를 발표하지 않아서 산업의 성과를 가늠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북한 산업의 동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특히 북한 군수공업은 농업 및 광업 등 다른 산업에 비해서 더욱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그 성과를 추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군수산업의 동향 파악에 그나마 도움을 주는 것은 『노동신문』, 『조선신보』 및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정부 또는 재일조총련 등이 운영하는 언론매체의 보도기사 들일 것이다. 또한 일부 국내 및 해외의 북한 관련 전문 언론매체가 보도하는 기사도 북한 군수산업을 이해하는 데에 단초를 제공한다.

하지만 북한 연구에 오아시스 역할을 하는 이러한 자료들조차도 북한 군수산업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료 또는 기사들의 상당 부분이 정보 부족의 결과로 왜곡되어 있거나 북한정부 선전선동의 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주의와 비판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1차 자료의 절대적인 미비로 인해서 부족하나마 상기의 자료들을 분석에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관련 북한 언론매체의 자료를 포함, 가용한 자료들을 최대한 동원하여서 북한 군수산업의 상반기 성과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II. 북한 군수산업의 2016년 전반기 동향 및 성과

2014년 5월 30일 발표된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할 데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김정은 담화 이후에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는 원료의 수요와 상품 공급을 정부 차원이 아닌 공장 및 기업소 차원에서 결정하고 있다.¹⁾ 공장 및 기업소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이 주어진 것이다. 그 결과 공장 및 기업소의 생산이 늘어나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전문가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민생분야 제품의 생산에만 적용된다. 무기 및 군수품 생산은 여전히 국가의 사전계획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북한정부의 정책결정 및 생산량 배정이 군수산업분야 공장의 생산량 실적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각 군수공장이 정부로부터 얼마만큼의 생산량을 배정 받았는지가 그 공장의 실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한편, 원료 공급의 원활성도 각 공장의 생산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자원이 부족한 북한에서는 원활한 원료수급이 뒷받침되어야만 각 공장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력 및 용수 공급과 같은 생산기반 요소의 원활한 공급도 생산량 증가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군수품을 생산하는 북한의 군수공장은 이러한 원료 공급 및 생산기반 요소의 부족을 상대적으로 덜 걱정하였다. 왜냐하면 김일성 및 김정은 시대에 ‘국방·경제 병진노선’과 ‘선군노선’ 등을 따르던 북한에서는 군수공장에 대해서만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우선적

1) 『노컷뉴스』, 「북한 '5·30 조치', 김정은 제1비서의 경제 관련 담화」, 2016. 1. 6.

으로 공급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방공업정책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북한 군수공업의 성과를 추정하는 데에 필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판단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하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핵을 제외한 재래식 국방공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자원이 한정된 현 상황에서 북한이 핵개발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생산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정부의 공업투자정책은 재래식 분야 군수공업의 성과를 가늠하는 데에 주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먼저 최근 북한 국방공업정책의 방향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2016년 전반기 북한 군수산업의 동향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1. 2016년 김정은 정권의 국방공업정책 방향

2016년 현시점에서 북한은 자신의 국방공업 능력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즉, 김정은은 2016년 5월에 열린 제7차 노동당대회의 ‘사업총화보고’에서 “총결기간 국방공업과 국방과학기술부문에서 세상을 놀래도록 만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국방공업과 국방과학기술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국방중시사상을 높이 받들어 우리 식의 새로운 주체무기 개발사업을 힘 있게 벌려 국방공업 발전에서 최첨단 돌파의 전망을 열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국방과학기술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으며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핵무기 연구부문에서는 세 차례의 지하핵실험과 첫 수소폭탄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라고 보고함으로써 국방공업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표출한 바 있다.²⁾

그런데 북한이 이처럼 국방공업부문에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이 분야, 즉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는 국방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줄이려고 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분야보다도 우선적으로 핵개발 및 민생경제 분야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북한이 핵을 제외한 재래식 국방공업에 대한 투자를 줄일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앞으로도 국방공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모양이다. 2016년 들어서도 국방공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지난 5월 제7차 노동당대회의

2) 『노동신문』, 「사업총화보고」, 2016. 5. 8.

‘사업총화보고’에서 ‘사회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정치군사적 위력강화’이다. 즉, 김정은은 “국방공업 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운명,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 국방과학부문에서는 국방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높이며 그에 토대하여 조국통일대전의 진군 길을 열어제낄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 식의 현대적이고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연구하여야 합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국방공업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³⁾

그런데 이와 같은 김정은의 주장은 2016년 1월 발표한 신년사에도 나타난 바 있다. 즉,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군수공업부문에서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더욱 높이며 군자리 혁명정신을 발휘하여서 적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우리 식의 다양한 군사적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정은이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처럼 국방공업의 우선적 발전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핵무력 발전뿐만 아니라 동시에 민생부문 발전도 함께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김정은의 정책은 ‘사업총화보고’에 나타나 있는데,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한’ 5가지 방안 중 하나인 ‘경제강국 건설, 인민경제 발전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즉, 김정은은 경제 전반을 평가하면서 “첨단수준에 올라선 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으며 인민경제 부문들 사이의 균형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선행부문이 앞서나가지 못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이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 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 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나라입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낙후된 전력 및 수송 등의 선행경제 및 민생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김정은의 민생경제 발전전략은 그의 인사정책에서도 표출된다. 김정은은 지난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내각총리 박봉주를 이례적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여서 향후 핵무력과 민생경제를 함께 고려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⁴⁾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2016년에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을 기반으로 핵무기, 재래식 무기 및 민생경제 등 세 분야 모두의 투자를 병행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국방비는 한국의 30% 수준인 100억달러 정도이고

3) 『노동신문』, 「사업총화보고」, 2016. 5. 8.

4) 『연합뉴스』, 「북 박봉주 당 중앙군사위원회 포함 ... 병진노선 경제측면 지원」, 2016. 5. 10.

이 중 전력증강비도 한국의 약 40%에 달하는데,⁵⁾ 이것이 북한의 군수산업이 민수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히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제동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공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이지 증가세를 보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 근거로 북한의 2016년도 국방예산을 들 수 있다. 2016년 북한의 국방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15.8%로서 2015년 예산비율인 15.9%에 비하여 약 0.1% 정도 감소하였다. 물론 북한이 발표하는 공표군사비가 북한의 실제 국방비의 약 30% 정도에 불과하여서 발표된 수치만으로는 국방예산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약간이나마 감소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북한의 2016년 국가예산 증가율이 5.6%에 달하고⁶⁾ 부문별로도 작년 예산과 비교하여 기본건설 13.7%, 교육 8.3%, 문화 7.4%, 산림 7.5% 및 수산 6.9% 등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2016년 국방예산은 다른 부문의 2016년 예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체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 군수산업의 2016년 전반기 동향

북한 군수산업에 대한 수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북한군에 의한 국내 군수품 수요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국가의 무기수입에서 비롯된 해외수요이다. 그런데 북한의 내수는 매년 큰 변화가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노후화된 무기를 대체하는 북한 재래식 무기의 대체수요와 기존 무기에 대한 운영유지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수요 분야의 급격한 변동은 거의 없는 듯하다.

북한은 매년 상당 규모의 신규 무기체계를 전력화시키고 있다. 주로 노후화된 무기체계를 대체하는 수요인데 2016년 전반기에도 노후화된 전자 및 장사정포 등을 신형으로 대체하려는 통상적인 수요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신규 조달 무기체계의 일부는 선전선동 측면에서 일부 계층의 헌납 형식을 빌려서 조달된다. 북한 관영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6월 1일 조선소년단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서 북한 소년들이 ‘소년호’로 명명된 122mm 방사포 10여 문을 인민군 부대에 기증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신규 무기체계의 일부가 이러한 형식을 빌려서 매년 북한군에게 공급되고 있다.⁷⁾

그런데 이와 같은 통상적인 재래식 무기체계의 대체수요 이외에 최근 특별히 부각되고

5) 『중앙일보』, 「한민구, 북한 실제 국방비 11조 5000억」, 2016. 5. 5.

6) 『경향신문』, 「북한, 국가예산 15.8% 국방비에 투입 ... 2016년 예산안 채택」, 2016. 3. 31.

7) 『노동신문』, 「소년호 방사포증정식 거행」, 2016. 6. 3.

있는 군수산업 활동은 미사일분야의 연구개발 및 생산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상반기 북한은 미사일의 연구개발에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활동은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에 잘 나타나 있다. 즉,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진입 지상모의실험,⁸⁾ 대출력 고체로켓 엔진의 분출시험과 단분리실험,⁹⁾ 그리고 신형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의 대출력 엔진 지상분출실험¹⁰⁾ 등이 바로 그러한 사례인데, 이러한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미사일분야 연구개발이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분야 연구개발의 투자 증대는 2016년 전반기 여러 번에 걸친 미사일 발사실험을 수반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 최근 4년간 북한의 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 일지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스커드 계열		2발(2월 27일), 2발(3월 3일),2발(6월 29일), 2발(7월 9일), 2발(7월 13일), 1발(7월 26일)	2발(3월 2일)	2발(3월 10일)
신형 단거리		1발(9월 1일) 3발(9월 6일)	5발(2월 8일)	
노동 계열		2발(3월 26일)		2발(3월 18일)
무수단 계열				1발(4월 15일), 2발(4월 28일), 1발(5월 31일) 2발(6월 22일)
KN 계열	수발(2월 10일), 2발(3월 15일),2발(5월 20일)		1발(4월 2일), 4발(4월 3일), 2발(4월 7일), 3발(5월 9일), 3발(6월 14일)	
SA 지대공			7발(3월 12일)	3발(4월 1일)
SLBM			1발(11월 28일), 1발(12월 21일), 1발(12월 25일)	1발(4월 23일)
300mm 방사포	6발(5월 18일) 1발(5월 19일) 4발(6월 26일)	4발(2월 21일), 4발(3월 4일) 3발(6월 26일), 2발(6월 29일) 2발(7월 2일) 4발(7월 30일) 5발(8월 14일)		6발(3월 3일), 5발(3월 21일) 1발(3월 29일)
240mm 방사포		3발(3월 4일) 100여 발(7월 14일)		
프로그 미사일		25발(3월 16일), 28발(3월 22일) 16발(3월 23일)		

자료: 『연합뉴스』, 「북 김정은 집권 이후 중단거리 발사체 발사 일지」, 2016. 6. 22를 재구성함.

8) 『노동신문』, 「탄도로켓 대기권 재돌입환경모의시험에서 성공 …」, 2016. 3. 15.

9) 『노동신문』, 「대출력고체로켓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 성공 …」, 2016. 3. 24.

10) 『노동신문』,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 대성공 …」, 2016. 4. 9.

〈표 1〉에 따르면 북한은 2016년 전반기에 26발에 달하는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미사일 시험발사는 미사일별 집중발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북한은 2013년에는 KN 계열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2015년에는 스커드 계열 미사일 및 300mm 방사포의 시험발사를, 2015년에는 KN 계열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그리고 2016년에는 무수단 계열 미사일 및 대공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최근에 이루어진 무수단 계열의 미사일 발사는 의도적인 고각발사로 이루어 볼 때, 대륙 간 탄도탄의 대기권 재진입기술 획득을 위한 시험발사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즉, 북한은 2015년 1월 23일 및 5월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SLBM 사출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그해 11월 28일, 12월 21일 및 12월 25일에 SLBM 발사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2016년 4월 23일에도 신포 동북방 해상에서 SLBM을 발사하여 30km 정도의 비행에 성공한 바 있다.¹¹⁾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연구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개발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해당 분야 국방산업의 가동률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험발사를 위해서는 탄두 및 추진체 같은 하부체계와 전자제품 같은 부품들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조립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북한 전체에 얼마나 많은 군수공장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약간씩 다르다. Andrea Berger(2015)는 북한의 군수공장이 약 55~100여 개에 달한다고 추정하는¹²⁾ 반면에 미국은 북한의 군수공장이 약 134개 정도이며 그 대부분은 지하에 위치한다고 추정한다.¹³⁾ 한편, 북한 군수공장 중 군수완제품 및 군수부품을 생산하는 전문공장은 약 180개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전문가도 있다.¹⁴⁾

그런데 이 중에서 미사일 부품을 생산하고 조립하는 북한의 군수공장은 십여 개에 달한다. 2016년 이와 같은 미사일 공장들의 가동률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히 2016년 상반기에 김정일이 현지지도를 수행했던 대표적 미사일 생산공장인 태성기계공장¹⁵⁾과 2015년에 현지지도를 수행했던 미사일 부품공장인 평양약전기계공장¹⁶⁾ 등의 생산활동이 상당히 활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11) 『세계일보』, 「북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 일지」, 2016. 4. 23.

12) Andrea Berger(2015), p.36.

13) Andrea Berger(2015), pp.36-37.

14) 신범철 외, 『북한 군사연구 2012』, 2012. p.258.

15) 『노동신문』, 「태성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현대화과업을 제시 ...」, 2016. 3. 2.

16) 『동일뉴스』, 「북 김정일 평양약전기계공장 찾아 우리식 제품 개발하라」, 2016. 4. 8.

3. 북한 군수산업의 2016년 전반기 성과

2016년 상반기 재래식 무기의 대체수요를 포함한 북한 국방공업의 국내수요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고 추정된다. 특히 제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2월 23일에서 5월 2일까지 진행된 ‘70일 전투’가 군수공장 가동률을 유지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2016년 북한 국방공업의 가동률은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미사일개발 분야는 2016년 상반기 중에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병행하여 활발한 생산활동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내수요와는 달리 해외수요는 2016년 전반기에도 저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들어 대북제재의 여파로 북한무기에 대한 해외 수요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2016년 1월에 실시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되었다. 다자차원에서는 ‘UN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발효되었으며, 미국, 일본 및 스위스 등 양자차원의 제재도 시작되었다. 그 결과 북한의 무기수출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최근 북한은 해외 무기수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종완제품 수출뿐만이 아니라 생산공장 단위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국가에 대해서 무기 생산공장을 설계하고 건설해 주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나미비아 및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의 무기 생산공장 건설인데, 나미비아 정부는 북한이 아프리카에 무기 및 탄약 공장을 건설하였으며 나미비아 사관학교 및 병영 건축 등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2016년 3월 17일에 발표한 바 있다.¹⁷⁾ 이러한 군수공장의 건설은 단기적으로는 최종완제품의 수출 감소를 가져올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무기의 운용유지 부품 및 하부체계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수반할 수도 있다.

III. 북한 군수산업의 2016년 하반기 전망

1. 대북제재가 북한 군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발효된 지 약 3개월 정도가 경과하였다. 하지만 대북제재의

17) *Defense News*, "Namibia Confirms North Korean-Built Arms and Ammunition Factory," March 17, 2016.

효과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대북제재 발효 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대북제재가 북한 군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역시 시기상조인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북제재가 군수산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분야에서 확실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첫째는 국제시장에서의 북한 무기수출 감소이다. 북한의 무기수출은 대북제재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다. 그로 인해서 북한의 무기수출은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해 왔다. 그런데 금번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 포함된 재래식 무기의 catch-all 조항이 북한의 무기수출을 감소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대북수출 통제는 WMD 활동과 관련된 북한물품의 수출 통제에 중점이 주어져 왔다. 하지만 금번 UN 결의안은 북한 WMD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의 연구개발과 생산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즉 북한 군대의 작전수행능력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 가능한 모든 품목에 적용된다. 그 결과 북한의 무기수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한이 주로 수출하는 미사일과 장사정포뿐만 아니라 AK-47 기관총과 같은 소규모 휴대무기의 수출도 급격히 감소하리라 전망된다.

한편, UN 제재에 규정된 모든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검색도 북한 무기수출을 감소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실 북한의 무기수출은 이전의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도 금지되어 왔었다. 하지만 선박 및 항공에 대한 느슨한 검색으로 인해서 국제적 감시망을 벗어난 북한의 무기수출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형태의 북한 무기수출은 쉽지 않을 것이다. 금번 UN 결의안은 수리 및 서비스 제공 목적의 무기운송조치도 위반임을 명시하였으며,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출발한 해운 및 항공의 자국 내 검색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은 ‘관련 회원국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UN 결의안을 준수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그동안 자국 내 화물검색에 크게 열의를 보이지 않던 중국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검색임무를 수행할지에 그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현시점에서 판단하건대 중국의 태도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듯하다. 즉, 중국은 과거보다도 상대적으로 열의를 갖고 UN 결의안을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재래식 무기수출에 대한 중국의 규제 역시 상당히 구체적이다. 즉, 중국은 UN 결의안 이행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양자제재를 실시한 바 있는데 북한의 외화소득이 핵개발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5일에 25개 품목에 대한 수출입 통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4월 25일에는 WMD 및 무기개발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40개 품목에 대한 대북 금수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로 판단해 보건대 중국의 대북제재는 이전과는 다른 강도로 이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이행준수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면 북한의 무기수출은 향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2. 북한 군수산업의 2016년 하반기 전망

지난 6월에 발표된 중국 해관통계에 의하면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석탄의 규모가 전년 동기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 감소가 대북제재의 효과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러한 수입물량의 감소는 대북제재의 여파가 아니라 사실상 중국의 경기침체 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감소 때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북한의 해외소득 감소는 북한의 무기 생산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무기 생산에 쓰이는 티타늄 같은 필수 원료의 대북수출 금지는 결과적으로 북한 무기 생산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최근 들어서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중국의 수출금지를 우회하기 위하여 무기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원료의 불법수입이 횡행하고 있다고 한다. 트럭 밑에 티타늄 강판을 숨겨서 밀반입한 사례도 보도되고 있다.¹⁸⁾ 이러한 상황의 지속 여부는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 및 국경무역 단속 정도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해외의 무기수요 감소는 필연적으로 2016년 하반기 북한 국방공업 가동률의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하반기 경제성과 제고를 위하여 '70일 전투'가 끝나자마자 다시금 '200일 전투'를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200일 전투'의 대표적 성과로 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 성공을 꼽은 바 있다. 한편 군수공업이 속한 기계공업의 6월 실적이 120%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¹⁹⁾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품의 국내수요는 2016년 하반기에도 꾸준히 유지되리라고 생각된다. 북한이 국방공업 발전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험발사를 통한 미사일 분야의 가동률 제고는 2016년 하반기 국방공업의 전반적인 가동률 유지에 도움을 주리라고 판단된다.

한편, 민생경제 투자 확대를 통한 재래식 무기 생산의 감소 경향이 중장기적으로 표출될

18) 「데일리NK」, 「북, 무기제조에 필요한 금속 트럭 밑에 숨겨 밀수입」, 2016. 4. 26.

19) 「통일뉴스」, 「북, 200일전투 한 달, 공업총생산액 계획 120% 초과 달성」, 2016. 7. 5.

가능성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는 핵개발이 상당 수준에 도달하여서 소위 그들이 말하는 ‘대미 억제력’을 확보하게 될 때의 상황이며, 그때까지 단기적으로 북한의 재래식 무기 생산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일정 기간 동안 국방공업도 꾸준히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북한, 국가예산 15.8% 국방비에 투입 … 2016년 예산안 채택」, 2016. 3. 31.
- 『노컷뉴스』, 「북한 '5.30조치', 김정은 제1비서의 경제관련 담화」, 2016. 1. 6.
- 『노동신문』, 「태성기제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현대화과업을 제시 …」, 2016. 3. 2.
- 『노동신문』, 「탄도로켓 대기권 재돌입환경모의시험에서 성공 …」, 2016. 3. 15.
- 『노동신문』, 「대출력고체로켓 대출력발동기지사분출 및 계단분리시험 성공 …」, 2016. 3. 24.
- 『노동신문』,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대출력발동기지사분출시험에서 대성공 …」, 2016. 4. 9.
- 『노동신문』, 「사업총화보고」, 2016. 5. 8.
- 『노동신문』, 「소년호 방사포증정식 거행」, 2016. 6. 3.
- 『데일리NK』, 「북, 무기제조에 필요한 금속 트럭 밑에 숨겨 밀수입」, 2016. 4. 26.
- 『세계일보』, 「북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 일지」, 2016. 4. 23.
- 신범철 외, 『북한 군사연구 2012』, 한국국방연구원, 2012.
- 『연합뉴스』, 「북 박봉주 당중앙군사위원회 포함 … 병진노선 경제측면 지원」, 2016. 5. 10.
- 『연합뉴스』, 「북 김정은 집권 이후 중단거리 발사체 발사 일지」, 2016. 6. 22.
- 『중앙일보』, 「한민구, 북한 실제 국방비 11조 5000억」, 2016. 5. 5.
- 『통일뉴스』, 「북 김정은 평양약전기제공장 찾아 우리식 제품개발하라」, 2016. 4. 8.
- 『통일뉴스』, 「북, 200일전투 한 달, 공업총생산액 계획 120% 초과 달성」, 2016. 7. 5.
- Andrea Berger, Target Market: North Korea's Military Customers in the Sanction Era, *Whitehall Paper 84*, RUSI, 2015.
- Defense News*, "Namibia Confirms North Korean-Built Arms and Ammunition Factory", March 17, 2016.